**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 17-25절>**

**17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은 부활절 후 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Den Vitězstvi, 즉 ‘승리의 날’이란 이름의 체코 광복절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5월 8일과 9일을 2차대전 희생자를 위한 추모와 화해의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한 ‘어버이 날’입니다. 체코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의 날’인데, 마침 올해는 부모를 생각하는 날이 겹친 셈입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자식 된 입장에서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회마저 없다면 우리는 은혜를 잊은 채 그저 모든 걸 당연하게만 여기며 살기 쉽습니다.

이 자식 됨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은 부모 됨의 의미에 대해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2년 전 세월호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지금껏 저렇게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애쓰고 있는 것은 자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최근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시작되면서 자녀와 가족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뛰어다니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한 부모의 입장이었더라도 결코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 전에 터졌던 이 일이 하필 이 시점에 다시 이슈화된 것은 그 뒤에 다른 어떤 꿍꿍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알바 동원 세월호 반대집회를 해오던 ‘어버이 연합’이라는 단체에 전경련이 뒷돈을 대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자식들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저토록 다른 모습을 띨 수도 있음을 우리는 씁쓸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릴 땐 그저 우리 아빠가 최고인 것 같았는데, 점점 자라가며 우리 아빠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 아빠이지만 말입니다.

제가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 몇 년 전 한국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중에 <내 딸 서영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 자식들에게 늘 민폐가 되는 아버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딸이 그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자기는 부모 없는 고아라고 속이고 결혼한다는 설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후에 그녀에게 아버지가 있는 것이 밝혀져 갈등을 겪다가 조금씩 화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 드라마의 줄거리라고 하는군요.

또, 한 동안 금수저-흙수저 얘기가 한국사회에서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소위 ‘수저계급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부잣집 자식을 일컬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는 관용어구에서 파생된 신조어입니다.

아무리 죽도록 열심히 뛰어가도 자기보다 앞에서 출발한 놈을 절대 앞지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불평등 구조와 그로 인한 젊은이들의 좌절감을 반영하고 있는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좌절감은 자녀들만 느끼는 게 아닐 것입니다. 내가 힘 없고 돈 없는 탓에 내 자녀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 느끼는 부모들 역시 어쩌면 같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좋은 신앙인 부모가 되기를 갈망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새삼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겐 이미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믿음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새로 태어납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4-16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그렇게 부를 뿐입니까, 아니면 그 사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를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오늘 나의 삶을 지켜보며 붙잡아줄 분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본문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행위에 대해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직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심판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그 때를 준비하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지켜봐 주지 않는 인생, 아무도 붙잡아 주지 않는 인생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때론 그저 지켜보며 믿어주시고, 때론 실수할 자유로 허락하시고, 하지만 때로 우리가 잘못 갈 때면 경책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춘기의 청소년들처럼 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가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후회 없이 잘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말해줍니다.

본문 18-1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팔렸던 소유물을 다시 값을 치르고 되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AD 1세기 박해의 상황 속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좇아 살던 그들,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들을 거기서 빼내어 다시 자기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통 귀하다 말하는 은이나 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고귀한 희생이었습니다.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내어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게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일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그렇게 내어주신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은과 금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집니다. 가지고 있던 많은 돈도 어느 순간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허무함과 덧없음입니다.

하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대신해 흘리신 보혈은 이 세상을 지나 저 세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 살려낸 사람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다시는 과거와 같은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처럼 고귀한 인생을 살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우리의 뒷배경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말해줍니다.

본문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금수저 자식의 뒷배경을 부러워합니다. 그가 뭘 잘못 해도 뒤처리 다 해주는 아버지, 그가 뭔가를 하려 할 때 빵빵하게 밀어주는 아버지, 누가 그를 해하려 할 때 뒤에서 다 막아주는 아버지 …

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언제나 자식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런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때때로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신뢰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힘에 관해서라면, 혹은 능력에 관해서라면, 이 세상 어떤 힘센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힘을 이기적이고 왜곡된 방향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마 조용히 뒤로 숨으실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든든한 뒷배경을 믿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아버지는 어쩌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자녀들을 위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영광의 때를 이 땅을 사는 동안 맞지 못할 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시작하였고, 그 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할 것이며,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는 그분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서 다윗은 스스로를 향해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여정이 얼마나 질적으로 다를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본문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어떤 놀라운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썩지 아니할 씨”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들 속에서는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서 때가 되면 마르고 썩어집니다. 또한 그 육체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때가 되면 떨어지고 볼품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 살다 가고, 그 사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 누군가는 그로 인해 수치 혹은 영광을 얻지만, 그 모든 변화하고 스러지는 것들 속에서도 영원히 한결같이 남아 기억되며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인생은 이처럼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일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이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사랑의 삶은 화려한 삶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그것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가능할 수 있는 삶입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의 실천입니다.

우리 속에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귀한 씨앗이 심겨져 있음을 믿고, 그 씨앗이 잘 자라 열매 맺게 하는 우리의 정성스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지켜보시고 붙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시는 능력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놓으신 분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며 바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바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하는 이 세상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